35_1_한국어_瀬田廃寺

세타하이지 절 (구와바타하이지 절)

세타하이지 절은 나라・ 헤이안 시대의 사원으로, 발굴 조사에서 탑, 금당, 강당, 승방, 회랑, 흙담, 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. 남아 있는 초석과 건물 배치로 봐서, 오사카 시텐노지 절과 닮은 문, 탑, 금당, 강당이 일직선으로 늘어선 건물 배치인 사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

처마 끝 기와에는 구름 무늬의 장식이 있었습니다. 세타하이지 절은, 나라 시대의 오미고쿠분지 절이 소실된 후,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